

# 가지 않은 길

로버트 프로스트

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.  
몸은 하나니 두 길은 다 가 볼 수는 없어  
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 
젓나무 숲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 
끝 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.

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.  
먼저 길과 또같이 아름답고,  
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.  
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.  
사람이 밟은 흔적은  
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,

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 
두 길은 그날 아침 또같이 놓여 있었습니다.  
아, 먼저 길은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 
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.

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 
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.  
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, 그래서 나는  
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,  
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